

# 국내 최초 ESCO사업에 민간자금 지원

## 하나銀, ESCO자금 지원... 에관공과 3천억대출 협약

■ 이애경 기자(ak07@energycenter.co.kr)

□ 국내 최초로 ESCO사업에 민간자금이 지원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저희 은행에서는 이미 '아파트새로미대출'이라는 아파트시설용자 상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를 진행하면서 에너지절약사업에 있어 올해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제한된 예산의 정책자금만으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속되는 고유가시대에 은행의 공익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민간자금의 공급에 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업무제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협약체결로 내년도 아파트 및 공공부문 등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추진하는 ESCO를 대상으로 3천억원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시설 등 에너지 SOC분야에 대한 자금지원도 펀드조성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기법 개발을 통해 지원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대출금액은 사업규모별로 소요자금이 확정되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연 3%대)와 하나은행의 아파트새로미대출(연 5~6%대) 자금을 Pooling하여 대출받게 되므로 최저 연 4%대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라는 점과 대출기간이 최장 10년이라는 점도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SCO사업에도 대규모 민간자금이 투입되게 되었다. 하나은행(은행장 김승유)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지난 11월 10일 하나은행 본사 7층 대회의실에서 고유가를 대응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선 공동주택 등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추진하는 모든 ESCO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중소기업지원팀의 김종요 팀장을 만나 구체적인 협약내용과 추후 자금지원범위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자금지원의 차원을 넘어 에너지절약사업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협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민간금융기관이 공동의 관심사를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자금에만 의존했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금융기관이 국책사업인 에너지절약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국가정책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금부족이나 소진시 정부의 추가지원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인한 민간자금 유입으로 향후 에너지사업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자금대출이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활성화 전망이 밝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하나은행이 추구하고 있는 '푸른은행'이라는 기업이미지와도 연관되어 있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내다 보고 있습니다.

**추후 자금지원 범위 등 앞으로 추진방침에 대해 설명한다면?**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실무회의 및 ESCO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약내용 실행방안 및 추후 자금지원범위의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ESCO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집단에너지와 VA사업으로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은 3천억원 정도의 자금지원범위를 예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집단에너지사업과 VA사업으로 협력사업 범위를 넓혀나간다면 자금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은 앞으로 풍부한 민간자금으로 ESCO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의 첨단 금융기법과 자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김승유 하나은행장(왼쪽)과 김균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